

##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올해의 작가' 박기원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입력 : 2010.01.25 17:28 |

“예술적 공간 창출로 현대미술 확장”



설치 작가 박기원씨의 '마찰'. 작가는 기존 붉은 벽돌의 벽면을 그대로 둔 채 바닥에 가느다란 철실을 깔았다. 작가는 시각적 자극과 과도한 장식을 피하며 최소한의 개입으로 공간에 새로운 뜻을 던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2010년 올해의 작가'인 박기원씨(45)는 공간을 소재로 하는 설치 작가다. 작가는 시각적 자극과 과도한 장식을 피하면서 언뜻 보기에 비어 있고 뜻 없어 보이는 '공간' 창출을 통해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공해왔다.

2008년 공간화랑의 재개관전에 전시한 '마찰'은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전시 공간 바닥에 가느다란 철실을 깔았다. 한옥 천장에 반투명 비닐을 덮어 씌우는 방식의 이전 작품도 기존 공간의 속성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선정 이유로 "자극적 언어로 현란한 담론을 생산하거나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신 공간을 통한 예술의 심미적 가능성 탐구로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로(0) 상황이나 '진공 상태'에 관심이 많다. 원래 있던 장소와 나의 공간 작업, 그리고 관람객들의 3자 간 균형을 생각한다"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세계가 있지만, 전시장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잊고 본래 상태에 돌아간 듯한 느낌을 갖고 생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 "제 작업이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해 보이는 곳과 중요해 보이지 않는 곳 사이에 대한 관심을 함께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작가 박기원전'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는 4월7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린다. 박씨는 설치작품 5점, 드로잉 20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